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프로 사진가는 패스포트 포토2를 사용합니다.

Must Have Calibrite Passport Photo 2

20% OFF

역대 최대 보상 판매

색 바래고 낡은 **오래된 컬러차트!** 이제 **현금**처럼 쓰세요.
브랜드 무관, 상태 무관, 종류 무관!



ColorChecker

패스포트 포토2

패스포트 듀오

컬러체커 클래식

컬러체커 클래식 미니



☎ 02-713-5340 보상판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의 핵심 기술

✓ 본질의 차이
특수 배합 도료

캘리브라이트 : 특수 배합 도료를 직접 도포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분광 특성 구현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 분사(인쇄) 방식으로 인해 광원에 따른 색 왜곡 발생

✓ 빛의 완벽한 통제
반사 없는 정확한 컬러

캘리브라이트 : 극도의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차단해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종이 재질 특유의 광택과 난반사로 인해 컬러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

✓ 밀도의 깊이
빈틈없이 완벽한 단색

캘리브라이트 : 고밀도 단일 색상 층을 형성하여 노이즈 없는 완벽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미세한 잉크망점과 노즐의 잉크 혼합 현상으로 컬러 값 신뢰도 낮음

✓ 시간의 증명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도료

캘리브라이트 : 내광성이 뛰어난 특수 배합 도료로 자외선과 외부노출에 색상 유지력이 높음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와 종이의 한계로 인해 자외선이나 공기 접촉에 취약



BEST 베스트

캘리브라이트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

1. 산업표준 24색클래식 패치 타겟
2. 크리에이티브 인핸스먼트 타겟
3. 그레이 밸런스 타겟
4. 화이트 밸런스 타겟
5. 충격과 오염 방지하는 케이스
6. 전용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SIGMA

THE BF CAMERA

Radically simple, deceptively powerful. The system camera redefined.
Made in Aizu, Japan.



대한민국 사진·영상장비 대표기업

본사_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 세기빌딩 T.02.3668-3114(대) | F.02.742-3387
브랜드샵_T.02.3668-3109,3181 | F.02.2279-0887 광고·홍보_T.02.3668-3167



www.saeki.co.kr

포토키오스크

모두한컷

졸업앨범 전용



이동 편의성이 좋은 키오스크
분리 조립이 쉽고 가벼워
승용차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졸업앨범 컨셉촬영

졸업앨범에 셀프촬영 인생사진으로
컨셉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 수익창출

학교 · 기업행사, 돌잔치, 예식장 등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파란소프트"를 검색 후 채널추가 > 채팅하기



파란소프트



가격 및 구입 문의

051-624-5075

E-mail. paransoft@naver.com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02-511-9904 | 고객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풀림테크원 7층



서울시우수기업
The Excellent Company of Seoul



글로벌 성장기업
The Excellent Company of Korea



INNOBIZ
기술혁신명용소기업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EOS M50 (18-55)	EOS M50 II (18-55)	EOS R6	EOS R5
EOS R	EOS R6	EOS R5	EOS R5
EOS R5	EOS R5	EOS R5	EOS R5

Canon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승호



신년사

존경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협회를 지켜주고 계신 임원 및 지회장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협회에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며, 협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향한 회원 여러분의 애정과 인내, 그리고 책임 있는 참여가 있었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를 증언하고, 사람과 사회를 잇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는 그 가치를 지켜내는 전문 직능단체로서,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회원 중심의 정책,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석부회장으로서 저는, 집행부와 임원 여러분과 함께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신뢰 회복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소통과 협력, 그리고 원칙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협회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새해는 변화의 시작이자,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며, 협회의 미래를 공동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협회의 중심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빛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존경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협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임원·지회장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협회는 언제나 회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 위에 존재해 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진을 통해 삶을 기록하고, 현장을 지켜오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지금까지 그 역할과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협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과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협회를 향한 회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시선과 참여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협회가 여전히 건강한 기반 위에서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 생각합니다.

수석부회장으로서 저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협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공정한 운영, 그리고 일관된 원칙이 협회의 신뢰를 다시 단단히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협회 운영, 그리고 협회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는 협회가 다시 정비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간다면 협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늘 열린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현장에 좋은 빛과 좋은 순간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2026년 새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따스한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년 맞는 새해이지만, 올해는 유독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더 간절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사진업계가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카메라를 든 손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질 만큼 힘든 시기라는 것을 저 역시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는 쉬운 길만 걸어왔습니까? 빛이 부족하면 조명을 세우고, 구도가 막히면 발로 뛰며 새로운 각도를 찾아내던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또한 우리가 더 멋진 미래를 찍기 위해 잠시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화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은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지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면 외롭고 막막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선배는 이끌어 주고 후배는 밀어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즘 어떠냐"고 먼저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지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 또한 지회장으로서 거창한 약속보다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회 회원들이라면 어디서든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우리 조금만 더 기운을 냅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이 파고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웅크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다시 한번 뷰파인더 너머의 희망을 바라봅시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 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도 지회장 이정주 올림 



신년사

존경하는 본 협회 고문, 자문님 그리고 임원 및 회원 여러분,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덕분에 우리 협회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2026년이라는 숫자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협회 역시 이러한 새해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더 큰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협회의 발전은 결국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각자가
소속감을 느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우리 협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Ai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협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꾸준히 확대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품은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며,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우리 협회의 모든 회원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협회가 함께 걸어갈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힘이 되는 동반자로서 큰 성과를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여러분 복지정책위원장 이해승입니다.

새로운 해의 문턱에서,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기록해 온 모든 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렌즈를 들고 일상의 장면과 사회의 순간을 담아온 여러분의 시간이 곧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과거를 붙잡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언어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시대를 이해하는 창이 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진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공동의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병오년 한 해에도 사진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현실과 이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찰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 그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순간이 의미로 기록되고, 더 많은 장면이 이야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카메라가 향하는 곳마다 따뜻한 시선과 깊은 사유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 시점에서,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함께하는 한 해가 더욱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6 VOL. 576

발행인 겸 편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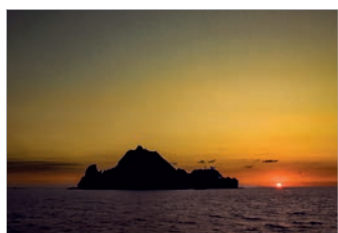
발행인 전병재
발행일 2026년 1월 1일
창간일 1977년 9월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TEL (02)4545-600(대)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_kppa1955 / PW_1234

기획위원장

나영균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이해승 주재기자, 변준섭 사무처장
인쇄 천상영(W 기획)
온라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 촬영: 이영익 초대작가〉

〈제목: 독도의 아침〉

〈작가약력〉

- 에덴스튜디오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총무위원장(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남지회장(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이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이사(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홍보IT 이사

12 ___ www.kppa.co.kr

PRO portrait



KPPA's 협회소식

'캐논본사 전 직원대상 사원증 사진 촬영 진행'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지난 11월 27일 캐논 안산 공장 전 직원 사원증 사진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12월 18일 삼성동에 위치한 캐논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22

권두언

7 신년사

한국인상사진 공모전

14 부산지회 수상작

16 충남지회 수상작

CONTENTS

월간 Pro Portrai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간 Pro Portrait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KPPA's 협회소식

22 캐논 본사 전 직원 대상 사원증 사진 촬영 진행

Kppa's NEWS

- 23 대구지회 - 사진전 개막
- 24 대구지회 - 제46차 정기총회 개최
- 26 서울지회 - 제33차 대의원 정기총회 성료
- 28 수원지회 -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의 밤 개최
- 30 광주지회 - 정기총회 개최
- 32 부산지회 - 2026년 시무식 개최
- 34 현장탐방 - 인천 손스튜디오 사진관 탐방

Kppa's EDU

- 38 2026 작가제도 영남권 워크숍
- 40 초대작가 명단
- 42 서현호의 카메라 아카이브

Kppa's 발전기금

46



박 용 주 작가

- 제 목 : 감천 문화마을에서 본 감천
- 작가소개 :
 - 2025년 1월 (사)한국 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2021년~2024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회장





김성곤 작가

- 제 목 : 공존
- 작가소개 :
 - 2019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제 944호
 - 2019 사진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 2018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무국장 역임
- 시상내역 :
 - 2017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협회장 표창패
 - 2018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협회장 공로패 (부산광역시 지회 촬영대회 금, 은, 동 외 다수)
 - 2024 전국사진대학세미나 참여대회 가작외 다수





- 제 목 : 부산 산토리니
- 작가소개 :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금정지부
 - 갈화사진관 대표



한 금 찬 작가





- 제 목 : 감천 문화마을에서 본 감천
- 작가소개 :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직할시지회 사하지부 회원
 - 가락사진관 대표



염 진 호 작가





- 제 목 : 숲속의 요정
- 작가소개 :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부지회장 역임
 - 연미스튜디오 대표



조 현 석 작가





- 제 목 : 아름다운 연출
- 작가소개 :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 대지스튜디오 대표



정 채 덕 작가





- 제 목 : 가득한 미소
- 작가소개 :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주재기자
 - 하이디스튜디오 대표



장 용 한 작가





▪ 제 목 : 나비가 되어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 동작을 보며 한 마리의 나비를 보는 듯한 美...
아름다운 동작 선율에 넋을 잊고 촬영한 작품입니다.

▪ 작가소개 :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명장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강원지회 감사, 사무국장, 재무국장 역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 감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여성가족복지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축제기록사진사업 지정촬영작가
- YMCA청소년수련관 사진강사



이 하 진 작가

-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진강사
- 상지여자고등학교 상지포커스필 사진지도 작가
- 제1회 어도사진 공모전 심사위원(2018)
- 제13회 대한민국해양사진대전공모전 심사위원(2018)
- 미시령힐링가도인제군발달장애인홍보단(강원도) 지정촬영
- 더아띠스튜디오 대표



캐논 본사 전 직원 대상 사원증 사진 촬영 진행



▲ 11월 27일 캐논 직원 사원증 촬영에 앞서 기념촬영. (왼쪽) 변준섭 사무처장, 오익제 위원, 이해승 복지정책위원장, 임원범 위원, 홍춘석 주재기자.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지난 11월 27일 캐논 안산공장 전 직원 사원증 사진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12월 18일 삼성동에 위치한 캐논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이번 촬영은 지난 8월 세미나 준비 기간 중 협회와 캐논 간의 협력 약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임직원들의 신뢰도 높은 사원증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촬영 환경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이날 촬영 현장에는 이해승 복지정책위원장과 오익제 위원 등이 참여해 촬영 전반을 지원하며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앞으로도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 사원증 사진 촬영을 통해 사진 산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비 셋팅 모습



▲ 사원증 촬영모습

대구지회뉴스

대구지회, 사진전 개막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가 12월 2일 오후 3시, 제1회 사진전의 공식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 그리고 한국프로사진협회대구지회 회원들이 올 한해동안 정성껏 준비한 끝에 치러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 당일,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전시장 점검과 작품 배치에 힘을 쏟으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8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전시장에 가지런히 걸리자, 오후 3시 개막식 시간에 맞춰 시지회 고문님과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분위기는 금세 활기를 띠었다.

행사는 소박하지만 진정성있게 진행되었다. 지회 회원들

과 지역 사진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고, 준비 과정과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어지며 따뜻한 박수가 퍼졌다.

또한 전병재 협회장이 늦은 시간에도 전시장을 찾아 지회장님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건네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대구지회는 “처음 준비한 전시라 긴장도 있었지만, 회원들의 열정과 협력 덕분에 보람 있는 전시회를 치를 수 있었다.” 며 “이번 전시가 대구지회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지회 제46차 정기총회 개최

사진: 안수민 글: 박분희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광역시지회(지회장 김경환)는 지난 2025년 12월 29일(월) 오후 4시 대구 달서구 테라스 스시뷔페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경환 지회장을 비롯한 대구지회 회원들과 협회장을 대신하여 협회 정태영 부회장, 지회

고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지회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총회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 ▲ 2025년도 사업 및 성원보고
- ▲ 2025년도 결산보고
-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었다. 특히 25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진전 개최 건과 사진문화상 관련 안건에 대해 회원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 총회 모습



▲ 정태영 부회장의 인사말



▲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이러진 시상식에서는 대구지회 6·6 촬영대회 시상을 비롯해 협회장 표창, 지회장 공로상 시상, 대구지회 지상 공모전 시상이 진행되며, 한 해 동안 지회 활동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고 우수 지부를 선발 동구지부 북구지부가 지회장으로 부터 금일봉을 전달 받는 영광을 안았다



▲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이계영 고문의 격려사를 통해 지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구지회가 지역 사진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위상을 높이고, 협회와 지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환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사진전 개최와 지상공모전등 총 8차례 지회운영회의와 다양한 지회 활동을 통해 매우 바쁘고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며,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고문님들과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사진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사진 예술인의

대구광역시지회는 앞으로도 전시회를 통해 예술인인증원 자격증, 지상공모전, 촬영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사진문화의 발전과 전문 사진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지회 제33차 대의원정기총회 盛了

2025년 12월 12일에 협회회관에서 열려

취재: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사진: 송진한 서울지회 사무차장



서울특별시지회(이경희 지회장)는 지난 2025년 12월 1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제33차 대의원정기총회를 하였다.

18시에 본 협회 회관 1층 택이네조개전골 군지역점에서 식사하고 19시에 총회를 진행하였다. 한장훈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국기에 경례와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내빈소개를 하고 조규영 협회고문, 이재범 협회자문, 백영욱 협회자문, 박용호서울고문, 임만준 서울자문의 격려 및 덕담하였고, 이경희 지회장은 원로 회원에게 안동소주와 털장갑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이경희 지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달 월례회 개최하고, 회원들을 위해 연수대회, 국내외 워크숍, 강의를 다양하게 진행한 것을 대의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2026년에도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행사 및 정부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지회 2025년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01월 10일 : 서울특별시지회장 취임식 및 신년회
- 05월 22일 : 서울지회 프로사진연수대회
(퍼스널컬러 스튜디오 응용 및 활용),
- 06월 27일 : 고자문 및 임원 워크샵(전남 신안 암태도)
- 08월 08일 : 월례회의 및 상벌위원회 소집,
- 09월 12일 : 추계 해외교적답사 (중국 황산, 서호, 항주)
- 10월 17일 : 입체 복원사진 세미나 (강사: 조형준)
- 11월 07일 : 택배비 정부지원사업 (강사: 한장훈)
- 12월 12일 : 제33차 정기대의원 총회



▲ 서울지회총회모습

시상에서는 윤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乙) 의 표창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조규영 협회고문이 시상하였으며, 황희운 서울지회재무, 김영우 관악지부장, 송전호 금천지부장, 김송희 동대문 회원이 수상을 하였다. 서울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장훈 사무국장은 이경희 서울지회장(議長)에게 성원 보고하였으며 이경희 지회장이 안건 심의를 하였다. 감사보고는 김영규 서울지회 감사, 정상열 서울지회 감사가 하였으며, 안건은 아래와 같다.

- 2호 안건 : 2025년도 사업 및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
- 3호 안건 : 2026년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4호 안건 : 기타 안건

변준섭 사무처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미역(다시마)을 참석한 모든 대의원에게 전달하였으며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총회를 마쳤다.

- 1호 안건 : 2024년도 제32차 대의원정기총회 회의록 인준에 관한 건



▲ 송전호, 김영우, 황희운 국회의원표창수상



▲ 김송희 국회의원표창수상

수원시지부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의 밤 개최

사진·글: 주재기자 김영철



경기지회 수원시지부(지부장 김성겸)는 2026년 정기총회 및 가족동반 신년의 밤 행사를 지난 1월28일 수원공군체육단연장에서 개최하였다.

조기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정기총회, 2부 신년의 밤 순서로 진행 되었는데

1부 정기총회에서는 유희근 감사의 감사보고 및 전상일

재무의 재무보고에 이어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과 기타 안건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김성겸 수원시지부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지부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들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회원증진과 단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이정주 도지회장의 격려사와 정봉희 고문의 축사가 이어졌다.



▲ 김성겸 시지부장



▲ 정기총회진행



▲ 유희근 감사 감사보고



▲ 우수회원 시상식

회원 시상식에서는 중앙분회 서준우 회원이 도지회장상을, 시지부 우수회원 표창에서는 김영철(중앙), 남윤학(서부), 김남기(남부), 전상일(북부) 회원이 수상하였다.

1부행사인 정기총회는 신입회원의 배지 전달식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2부는 가족동반 신년의 밤 행사로 모처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꽃 만발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26년에도 회원간의 화목과 단합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수원시지부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정봉희 고문 축사



▲ 회원윤리강령 선서



▲ 발전기금전달_이정희 앨범조합 수원지부장



▲ 신년의밤 행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정기총회 개최



1. 총회 개요

- 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7:00
- 장소: 광주디자인진흥원 4층 대회의실
- 협찬: 앨범조합협의회 및 지회 고문님들

2.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안)

1. 2026년도 시보조 문화정책과 지원보조사업
 - 현재 결과 미정
 - 2월 초 인터뷰 예정
2. 6월 호남권 세미나 개최(주최)





▲ 이정은 회원 협회장상

3. 공로 회원 시상

- 협회장상 : 이정은 회원
- 지회장상 : 정성희 회원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하신 두 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3. 8월 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세미나 참여

4. 2026년 대의원 선정 및 정기총회, 지회장 이·취임식 진행

- 세부 진행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

4. 맺음말

우리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광역시지회는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부산지회 2026년 시무식 개최... 힘찬새 출발 다짐

사진·글: 사무국장 이광호

부산지회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부산지회 사무국에서 박재영 지회장을 비롯한 고문·자문위원·임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산지회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아 지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박재영 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역동적이고 도약하는 말의 기운을 받아 지회가 더욱 발전하고, 각종 사업과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병오년 한 해 동안 모든 회원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중학 고·자문회 회장은 "올해부터 고·자문회

회장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산지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은 케이크 커팅식을 통해 부산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으며, 다과를 나누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병오년 한 해 동안 결속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회의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부산지회는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EOS R SYSTEM

캐논 풀프레임

‘한국의 발견’ 사진 공모전

‘풀프레임으로 담은 당신의 시선’
 도심을 수놓는 작품이 되다!

- 기간 25. 12. 26(금) ~ 26. 3. 11(수)
- 대상 EOS R 시스템 풀프레임 미러리스 사용자 대상
- 혜택 수상자 RF 렌즈 경품부터 대형 전광판 옥외 전시회까지!

현장탐방 | 손스튜디오 사진관

인천지회에서 두 번째로 인천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손스튜디오 사진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지회 사진관 방문 질문사항



▲ 주용철 사진작가 - 인천최초 백년가게 사진관 대표

1. 본인소개와 사진관 운영은 언제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인천 최초 백년가게 선정 사진관 손스튜디오 119사진병원 대표 주용철 사진작가입니다.

장인어른께서 1978년 3월 11일 창업하였고, 저는 2006년부터 함께 운영하며 현재까지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인어른, 아들, 사위 3명의 사진작가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명문 가문입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대한민국 끝과 끝에서 손스튜디오를 아들과 사위가 각각의 지점에서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인천지회 사진관중 최초로 백년가게 사진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전국 25,000여 사진업체 중 백년가게 선정 사진관은 전국 10곳이며, 인천에서는 최초입니다. 백년가게 선정 대한민국 10대 사진관이 되어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대를 이어 사진관을 지켜왔다는 점을 인정 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오랜 시간 믿고 찾아주신 고객분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사진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께,

사진도 전통을 지키는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사진관의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3. 백년가게 준비하는 사진관을 위해서 선정되기 위한 준비와 요건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등)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소상공인 사업체가 '백년가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운영된 사진관은 '백년소공인'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꽤 높아서, 선정되는데 많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평가 요소는 업력,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경영 철학, 고객 신뢰도, 매장 운영 상태 등이며,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업력 증빙 자료, 매출 관련 자료, 현장 실사와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단기간 준비보다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국프로사진협회 세미나에서 인터넷에는 없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직접 경험한 정보를 나누는 강의로 재능나눔해 보려고 합니다.



4. 백년가게에 선정되신후 달라진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고객분들의 신뢰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찾아오십니다. 공공기관 촬영 문의 및 상담에서도 높아진 신뢰만큼 장점도 늘었으며, 네이버 지도에 '백년가게' 이름이 별도로 생성되고, 시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백년가게의 명예를 받은 만큼 백년가게 사진관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역시 더 커졌습니다.

5. 사진업무 외 영상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계신데 사진과 영상등 매출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매출의 약 사진촬영 80%, 영상 및 기타 콘텐츠 20% 정도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당연히 영상이지만, 사진관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사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영상외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미 업무가 포화상태라서 별도의 광고없이 단골 손님들의 의뢰만 진행하는 수준으로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다각도 매출 확보를 위해서, 집 서랍에 있는 캠코더 테이프,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를 스마트폰과 최신 TV에서 볼 수 있게 디지털 영상 변환 등의 작업도 하고 있으며, 사진복원 합성 등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고객에게 신뢰를 줄수있는 나만의 고객응대 요령이나 팁이 있으신가요?

영업보다, 질문입니다. 이것까지 물어보나 할 만큼 많은 질문을 통해서 고객님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용도에 정확히 맞는 사진을 제공해드립니다.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손님께 맞춤으로 촬영해드려야 합니다. 증명사진도 수십 가지의 맞춤 촬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를 만들고 단골손님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촬영 시 가장 중요하게 또는 가장 신경쓰며 촬영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유행을 타지 않는 역사에 남는 사진을 촬영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당장 이쁜 세트 위주의 촬영은 몇 년뒤 금방 촌스러워집니다. 배경은 가급적 흰색으로 하며, 스튜디오는 암적 상태에서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하고, 10년 뒤 20년 뒤에 봐도 유행을 전혀 타지 않고 촌스럽지 않은 사진 이상의 작품을 담는데 중점을 둡니다.

8. 사진촬영후 수정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중 이신가요?

구독형 Adobe Photoshop 과 Lightroom 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스튜디오 119사진병원에서는 증명사진 가족사진 출장 사진 외에도, 인천시청 문화유산과 인천역사자료 작업, 그리고 인천시립박물관 유물 작업도 진행하고 청와대 복원 작업도 진행할 만큼 사진복원과 초정밀 사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은 모두 다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들이 통합되고 교차사용 되는 추세라서, 통합 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9. 고객이 가장 많이 요청하거나, 좋아하는 수정은 어떤 것 일까요?

우리 손스튜디오의 손님은 한번에 OK하시거나 작가님께 맡길게요 하는 손님분이 찾아주십니다. 과한 보정으로 마케팅얼굴이 되는 것이 아닌, '분명히 내 눈코입 그대로 고 내 얼굴 그대로인데도, 예쁘네'하는 정통리터칭 작업을 추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수많은 당선인을 만들었고, 그만큼 선거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선거사진은 뽀샵티가 절대나면 안되면서도 자연스럽게 멋지게 나와야 하는 사진이어서, 그에 맞게 제가 좋아하는 수정도 얼굴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멋지고, 인물이 고급스럽게 나오게 하는 수정을 합니다.

10. 현재까지 사진관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나요?

역사가 오래된 만큼, 기억 남는 고객분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IMF 시절 너무 어려워서 아들 사진을 작은 탁상액자로 하신게 마음에 한이었던 분께서, 25년만에 연락주셨었는데, 손스튜디오 역사실에 보관하고 있던 필름을 이용해서, 앨범으로 제작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손님께서 사진관을 계속 운영해주셔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시며 두손을 꼬옥 잡고 그 오래된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인사를 하시던 분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한 10년전쯤 쇼핑몰에서 높으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작가님도 VR 아시냐고 물으시면서, 얼마전에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명품 버버리 브랜드를 VR로 촬영한 작가님이 계시는데 VR촬영을 쇼핑몰에 한국최초로 적용해서 영국 버버리 본사에서 먼저 연락와서 극찬했었다고, 작가님도 VR해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보니 그 작가가 저라서 제 앞에서 제 자랑을 듣게 되었던 에피소드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요즘 특히 자주 있는 경우인데, 제가 백일, 돌 애기사진 찍은 아가였던 분들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찍으러 오셔서 인사하는 고객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11. 사진관을 운영하며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나요?

자영업 사장님들은 공감하길거예요. 오랜 기간 자리잡은 자리를 강제로 이전해야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뀌면서, 신세계 사진관으로 불릴만큼 20년간이나 자리잡았던 매장을 빼야했고, 새로 이전한 곳에서는 태풍을 맞아 상가 매장이 다 부서져 반년 넘게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사고가 연속으로 왔습니다. 업친데 덮친 상황인데, 거기에 또 추가로 코로나까지 직격탄으로 맞게되어 3연속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매장 이전한지 몇 년 안된 상태에서 새 매장으로 다시 또 이전하였고, 마이너스 상태에서 집도 팔고 완전 새로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는 시기가 참으로 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었습니다. 아날로그 비디오테이프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USB로 변환하는 작업과 사진필름 디지털 스캔 등 비대면 상품으로 고난을 버텼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비디오테이프 변환하는 업체 중 유일한 백년가게 사진관이 되었습니다.

12. 고객에게 어떤 사진관으로 기억되고 싶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사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진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사진하면 손스튜디오라는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약 50년간 운영하며 노하우를 다듬고 또 다듬었어도, 지금도 꾸준한 기술 연구와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AI 도입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명문인, 서울대학교에서 AI를 공부하고 사진관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 마지막으로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인천지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래는 더욱 정보가 소중한 시대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혼자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건 효율적이지 않고, 유튜브로 찾아보는 건 빠르고 좋은 정보가 아닐뿐더러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베이비사진 매출이 감소하였고, 네컷 셀프 사진기계 등장으로 삼사오모여서 찍던 이미지사진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진관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전문 분야였던 SI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서, 셀카사진으로 이력서사진을 무료로 정장합성까지 해주기 때문에 취업사진 매출이 급격히 줄 것이고, 셀카사진으로 전문 강사프로필 사진을 무료로 간단히 합성해주기에 프로필 매출도 줄어들 것입니다. 전문분야였던 사진복원도 순식간에 똑딱 무료로 해주는 시대가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복원작업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관은 혼자 버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경험과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되고, 젊은 사진인과 오래된 사진관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계속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2026 작가제도 영남권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 참석자: 이한우 이사님, 정세화 위원, 최용수, 신원재, 이희춘, 이경우, 위원님
- 기 간: 1박 2일
- 주요 논의사항:
 1. 협회 발전을 위한 작가제도 개선 방안
 2. 신규 추천 작가 선정 및 활성화 전략
 3.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

2. 2부 (특별 식사)

- 최용수 위원님과 신원재 위원님께서 제공한 대게, 고등어회 등
- 현지 식재료 활용한 협찬 만찬으로 풍성한 분위기 조성

3. 3부 (촬영 세션)

- 문무대왕릉 아침 일출 촬영: 역사적 유적과 자연의 조화 포착
- 속초 용굴 촛대바위: 해안 절경의 독특한 조형미 기록
- 현장 피드백을 통한 기술 교류

=== 행사 세부 일정 ===

1. 1부 (다과 준비)

- 정세화 위원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다과로 워크숍 시작
- 참가자 간 네트워킹 및 주제 발표

=== 작품 활용 계획 ===

- 촬영된 사진은 협회 공식 채널 및 지역 문화 행사 홍보에 활용 예정
- 참가자 포트폴리오로 공유해 창작 활동 확장 지원



=== 향후 계획 ===

-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2026 작가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 예정
- 지역 작가 지원 프로그램 확대 (예: 공동 전시회, 장비 대여)



▶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워크숍에서는 더 다양한 주제로 소통해요.



초대작가 명단

													
강대권	강명신	강민주	강준길	강치중	강현석	강호	고창문	고창원	곽완조	구근희	권명호		
													
권영성	권용욱	권원환	권재수	권태형	권학래	권혁만	김갑수	김경환	김광보	김광성	김광수		
													
김기성	김기엽	김기태	김달용	김동민	김동석	김동일	김동현	김동희	김두수	김두철	김만		
													
김만경	김명곤	김병렬	김상수	김서연	김선식	김성규	김성종	김수동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완국	김왕희	김용도	김용태	김우진	김우호	김육년	김육표	김원수	김은식	김은영	김이재		
													
김익환	김인환	김재준	김정수	김정수	김정환	김정훈	김제용	김종식	김종신	김종욱	김종인		
													
김종학	김중식	김중현	김진권	김진선	김진영	김진철	김찬홍	김상수	김천식	김천용	김태만		
													
김태봉	김택수	김하영	김행수	김현기	김현호	김형권	김홍진	김희덕	김희영	김희철	나영균		
													
남기평	남성우	남유형	노봉률	류영문	문병두	문봉대	문창순	문창진	민주식	민한기	박광섭		
													
박금서	박기환	박남규	박동철	박래성	박병무	박병학	박복근	박성동	박성열	박성준	박성진		
													
박수용	박재수	박정광	박종숙	박중한	박찬업	박천현	박태순	박희근	방태혁	배남태	배동민		
													
사국환	서동근	서동선	서병수	서승현	서양수	서태진	서하늘	서현호	서호경	성동권	성영현		



서현호의 카메라 아카이브

독일 린호프(Linhof)사의 "테크니카 주니어(Technika Junior)" 모델

카메라의 역사 보존과 사진 문화 계승의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글: 기획위원장 나영균



린호프는 고급 대형 포맷 카메라로 유명하며, 테크니카 시리즈는 특히 휴대성과 정밀한 기능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 린호프 테크니카 주니어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정확한 생산 연도는 카메라에 부착된 렌즈나 셔터의 일련 번호, 또는 특정 디자인적 특징을 통해 더 상세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모델과 후기 모델 사이에 미묘한 디자인 변화나 사용된 부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기모델로 추정합니다.

린호프 테크니카 주니어의 초기 모델과 후기 모델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디자인, 기능, 그리고 사용된 부품의 현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 린호프는 고급 대형 포맷 카메라로 유명하며, 테크니카 시리즈는 특히 휴대성과 정밀한 기능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 대형 포맷 카메라 (Large Format Camera) :

이 카메라는 일반적인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보다 훨씬 큰 필름(예: 6x9cm 또는 9x12cm)을 사용하는 대형 포맷 카메라입니다. 큰 필름은 훨씬 더 높은 해상도와 계조 표현력을 제공하여 풍경, 건축, 인물 사진 등에서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폴딩 디자인 (Folding Design) :

카메라가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촬영 시에는 전면부를 펼쳐 렌즈를 장착하고 초점 조절을 합니다.

- 렌즈 및 셔터 :

렌즈는 "SCHNEIDER KREUZNACH SYMMAR"로 보이며, 셔터는 "COMPUR"라고 쓰여 있습니다.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흐는 독일의 유명한 광학 회사이며, 콤푸르 셔터는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기계식 셔터로 명성이 높습니다.

- 움직임 기능 (Movements) :

대형 포맷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렌즈 보드와 필름 백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원근 왜곡을 보정하거나 피사계 심도 조절을 극대화하는 등 일반 카메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앞쪽 금속 레일과 노브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 뷰파인더/거리계 :

상단에 "Made in Germany"와 함께 보이는 부분은 광학식 거리계(Rangefinder) 또는 뷰파인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초점을 맞추거나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 "D.R.P. M." 및 "D.R.P." :

이 문구는 "Deutsches Reichspatent"의 약자로, 독일 제국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는 카메라가 독일에서 생산되었으며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전반적으로 이 리노프 테크니카 주니어는 뛰어난 광학 성능과 정밀한 기계적 조작성을 갖춘 전문가용 대형 포맷



카메라로, 클래식 카메라 애호가나 특정 스타일의 사진을 추구하는 사진가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장비입니다.

★ 초기와 후기 모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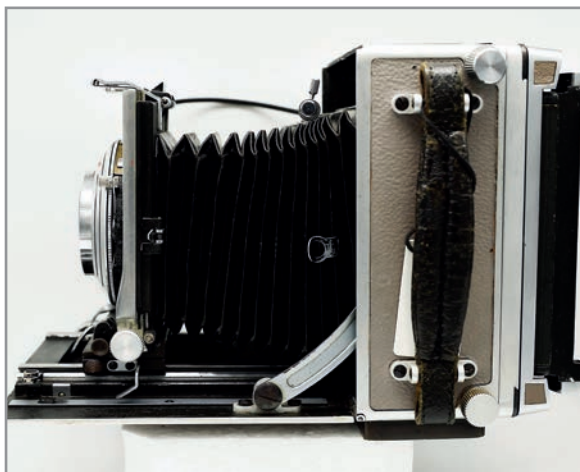
- 초점 방식 (Rangefinder Integration) :

초기 모델 (예: 1930년대 중반) :

일부 초기 모델은 내장형 거리계(rangefinder)가 없었거나, 외장형 거리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초점은 주로 무한대 초점을 맞춘 후, 접힌 벨로우즈를 통해 렌즈 보드를 움직여 스크린에서 직접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후기 모델 (예: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초반)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호프는 거리계를 카메라 본체에 더욱 통합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카메라 상단의 광학 부품이 바로 통합형 거리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통합형 거리계는 렌즈 보드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어, 거



리계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는 특히 휴대용으로 사용할 때 촬영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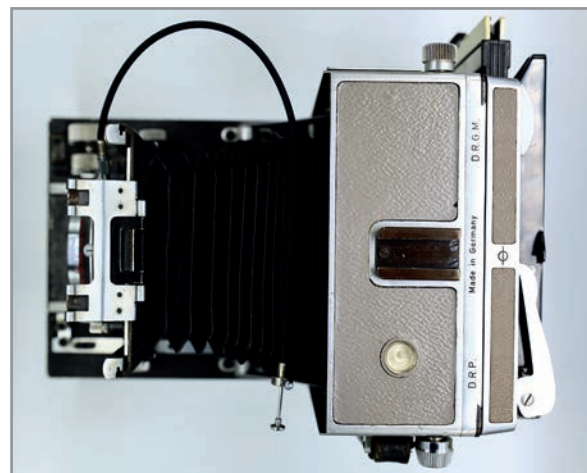
- 렌즈 보드 및 움직임 (Lens Board & Movements) :

초기 모델 :

렌즈 보드 움직임(rise, fall, shift 등)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수동 조작에 더 의존했을 수 있습니다.

후기 모델 :

리호프 테크니카 시리즈는 "움직임(movements)"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후기 주니어 모



델은 전면 틸트(tilt), 스윙(swing), 라이즈(rise), 폴(fall), 쉬프트(shift) 등 더 정교하고 부드러운 조절 메커니즘을 갖추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근 왜곡 보정이 나 피사계 심도 조절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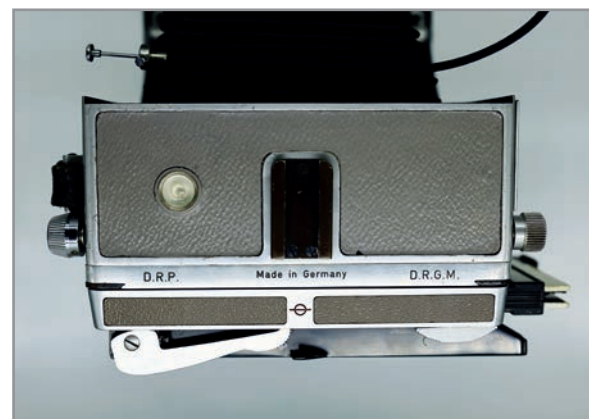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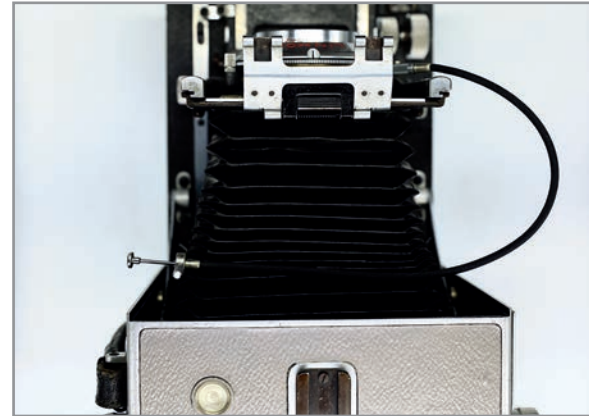
- 재료 및 마감 (Materials & Finish) :

초기 모델 :

특정 금속 합금이나 마감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후기 모델 :

제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견고하거나 경량화된 재료가 사용되거나, 마감의 내구성이 향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카메라는 비교적 깔끔한 금속 마감과 가죽(또는 레더렛) 그립을 보여주는데, 이는 린호프의 전형적인 고품질 마감입니다.



- 액세서리 호환성 :

후기 모델 :

시간이 지나면서 린호프는 다양한 액세서리(필름 홀더, 백, 렌즈 등)와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후기 모델이 더 다양한 현대식 액세서리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카메라는 상단에 거리계가 내장된 것으로 보아 후기 모델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 거리계는 린호프 테크니카 시리즈의 특징적인 발전 중 하나였습니다.



- 서현호 초대작가

- 2012 한국예총 사진인의상 수상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추천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지도위원
- "인생은 자유다" 서현호사진전

한국프로사진협회 발전기금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사진가의 길은 시간 위에 쌓입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지난 70여년 동안 모든 전문 사진가의 권익과 사진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울림이 되어, 사진시장의 미래를 밝힙니다.

발전기금은 협회의 재정운용과 교육, 전시 및 출판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보내실곳 : (농협은행) 301-0127-4083-41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를 후원해 주신 분 (단위 원)

김귀홍	100,000	김광수(강원앨범조합 이사장)	100,000
서호경	100,000	성철현(앨범연합회 회장)	200,000
신병호	100,000	권용옥	100,000
심준섭	100,000	김찬홍(경남앨범조합 이사장)	300,000
이승호	1,000,000	김현식(서울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이영익	100,000	박복근	200,000
이재범	100,000	박수열(경기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이한우	100,000	배계환(경북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장광동	100,000	육재원	100,000
조구성	100,000	장광동(충북앨범조합 이사장)	100,000
이재범	100,000	전씨 문중	100,000
		정옥기	200,000
		최영규(부산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The logo features a large green '70' with a circular emblem inside the '0' containing the KPPA logo and the text 'SINCE 1955'.

70년의 서터, 미래를 보다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길 잘했다!

풍수해 보장해

정부가 보험료 **55%** 이상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든든한 정책보험

가입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가입문의

 DB손해보험	044-205-5990	 현대해상화재보험	044-205-5991
 삼성화재해상보험	044-205-5992	 KB손해보험	044-205-5993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meritz 메리츠화재	044-205-5996		

국민재난 안전포털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www.safekorea.go.kr